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30명 이상 기독교인 참수…ISIS 잔혹 공격



모잠비크 북부 지역에서 아이시스(ISIS, 이슬람국가) 테러리스트들이 30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참수하고 최소 7개 교회를 파괴했다고 CBN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슬람국가 모잠비크 지부(ISMP)는 카보델가두와 남풀라 주 일대에서 방화, 총격, 참수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는 이슬람국가 모잠비크 지부의 성명과 공격 사진 20장을 확보해 번역·공개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공포를 통한 통치”로 지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ISMP는 9월 25일 두 명의 신자를 참수한 데 이어, 26일 또 다른

기독교인을 총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며칠 뒤 마코미 마을에서는 네 명의 기독교인이 추가로 참수됐으며, 나코차, 나쿠사, 민하냐, 나키오토 등지에서는 교회와 가정이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되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잠비크 정부는 8월 말 르완다와 ‘군사 지위 협정’을 갱신하고, 르완다 국방군(RDF)이 카보델가두 주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폭력 사태는 2017년 카보델가두 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6,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주민이 피란민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CBN뉴스는 모잠비크 기독교인들의 고통이 “서방 세계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다”면서 “2025년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기독교인을 참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인 30명을 참수했다는 헤드라인이 떴다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을 것”이라며, “주요 언론들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인 집단학살(genocide)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25 기독교 박해 국가 목록’(World Watch List 2025)에서 모잠비크는 기독교인으로 살기 어려운 나라 37위에 올랐다. 모잠비크 전체 인구는 주로 기독교인이며, 복음주의 및 오순절 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카보델가두 주는 이 나라에서 이슬람이 다수인 유일한 지역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7-18)

하나님, 모잠비크 카보델가두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잔혹한 행위와 공포정치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을 주님의 권능으로 꾸짖어 주십시오. 테러로 인해 수천 명의 증인들이 목숨을 잃어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상한 영혼을 위로해 주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구원이 임하고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 시리아, 총선 후 알레포서 폭력 사태

시리아가 지난 6일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처음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이후, 알레포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알레포 현지 선교사 우고 알라니즈 신부는 선거 이후 알레포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교회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까지 폭발음이 이어졌고, 많은 주민들이 교회 지하실로 피신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라니즈 신부는 내부 실항민이 많이 발생했으며, 현재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정부는 시리아 내 다양한 소수민족의 보호를 약속했지만, 알라위파(아사드의 종파)를 향한 학살과 기독교 교회에 대한 자살 폭탄 공격 등 우려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시편 11:5,7)

하나님, 정치적 과도기를 맞은 시리아에서 국회의원 선거 이후 또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시리아의 국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정 종파 간의 갈등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매일 진노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옵소서. 의인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박해 가운데 있는 시리아 교회에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 크로아티아, 발칸반도 청소년을 위한 기독 페스티벌에 1,300명 참석해

지난 6월 크로아티아의 시베니크에서는 발칸반도 청소년을 위한 기독 페스티벌 ‘스르코크렛 축제’(Srcokret Fest 2025)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스르코크렛’은 크로아티아어로 ‘해바라기’를 뜻하며, 하나님을 향해 사는 신앙인의 삶을 상징한다. 이번 대회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해체 후 각국으로 흩어진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6일간 진행됐으며, 크로아티아·세르비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슬로베니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 등에서 1,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를 총지휘한 기독 학생 단체 STEP의 자스민 아브다기치 변호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지역 젊은이들이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평화와 연대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축제는 예배와 공동체 훈련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했고, 50개로 이뤄진 워크숍을 통해 사회와 신앙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위해 6개국 청소년 단체가 연합해 준비했으며, 각국에서 활동하는 목사와 복음전도자, 단체 대표 등 11명이 연사로 참석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로새서 2:6-7)

하나님, 발칸반도의 흩어진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축제를 통해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며 바라봐야 하는지 주의 말씀 앞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청소년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진리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 그가 속한 공동체 역시 믿음에 굳게 서는 예수교회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가자지구 전쟁 2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회 폐허 속에도 신앙과 섬김 이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으로 지난 10일 가자지구 휴전이 발효되면서 인질 석방과 포로 교환 등의 협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도시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 두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절망의 현장에서 복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고 크리스채너티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슈돗의 베이트 할렐 교회를 이끄는 이스라엘 포흐타르 목사는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당시 그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 30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남쪽 하늘에서는 폭발음이 연이어 들려왔다. 그는 처음엔 가짜 뉴스라 여겼지만, 학살과 인질 사태의 실상이 드러나자 충격 속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날 아들을 군 기지에 데려다주며 병사들의 두려움과 혼란을 목격한 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흐타르의 교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 성도 120명이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 노인과 어린이, 젊은 어머니들에게 식량과 물을 전달했다.

목사는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방공호로 뛰어야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낮 동안 찾아가 식량과 기도, 그리고 위로를 전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정부와 군의 실패에 실망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교회에는 신앙을 탐구하려는 이들이 늘었다.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편, 전쟁의 반대편 국경에서는 또 다른 복음의 손길이 이어졌다. 카스르 엘 도바라 교회의 구호사업 디렉터 파우지 칼릴은 국경도시 셰이크 주웨이드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부상당한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신음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아무런 의료 기술이 없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마음을 주셨다”며 카이로로 돌아와 난민 구호사업을 시작했다. 처음 다섯 가구로 시작된 구호는 입소문을 타고 급속히 퍼져, 현재 매주 600명의 교인들이 카이로 내 5,000가구의 팔레스타인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칼릴 목사는 “대규모 배급보다 개인적인 방문이 중요하다”며, 난민들이 “단지 빵이 아닌, 함께 울어줄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한 가자 남성을 찾아가 “교회가 당신의 집입니다”라며 위로했고, 교회는 그를 위해 맞춤형 휠체어를 마련했다. 그는 “2년 동안 아무도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로마서 12:12-13,15)

하나님, 참혹한 전쟁의 폐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휴전이 발효된 지금 더욱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현장 속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온 자들에게 하늘 소망을 들려주셔서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로 주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로 일으켜 주십시오. 휴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전쟁의 후유증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주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를 통해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 한국, 전국 지자체 해킹시도 4년간 5,000만 건 육박…실제 15번 뚫려

최근 국내 통신사와 카드사 등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인 가운데, 지난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4,788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는 연평균 약 1,200만 건, 하루 3만 2,000여 건에 달하는 수치다. 전국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연간 800여만 건이었던 지자체 해킹 시도는 지난해 1,158만 건, 올해 7월 기준 이미 1,887만 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해킹 시도 중 99%가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고, 특히 충남은 올해만 1,200만 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격 유형은 서비스 거부가 491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 수집(344만 건), 시스템 권한 획득(146만 건), 정보 유출(65만 건), 홈페이지 변조(52만 건)와 악성코드(51만 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정지 등 1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12건의 피해가 발생, 인천 2건, 대전 1건으로 확인됐다. 해킹 공격 출처는 해외가 국내보다 11배가량 높았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잠언 28:10)

하나님,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전국 지자체 운영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마저 심각해 개인의 안보, 사회적 혼란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다스려 주소서. 주여, 불의한 목적으로 나라와 백성을 향해 가하는 사이버 공격을 멈춰 주시고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꾸짖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삶으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직 진리만을 따르는 예수교회의 순종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소서.

▲ ‘2025년 세계 학생의 날’…전 세계 대학생들, 하나 돼 기도한다

전 세계 수천 명의 기독교 대학생들이 10월 17일 ‘2025 세계 학생의 날’을 맞아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행사는 국제복음주의학생연합회(IFES)가 주관하는 세계적 기도 운동으로, 올해 주제는 ‘더 넘치도록’이다. 단체는 “세계 학생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학생 공동체가 한날 한시에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밝혔다. 주요 기도 제목은 캠퍼스 복음화, 지역 사회 섬김, 연합과 화해이다. 180개국 이상 회원 단체가 참여하며 각국 학생 사역자들과 교회들은 기도 모임과 찬양집회, 온라인 연합방송 등을 준비한다. 학생연합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기도지도와 기도 가이드북, 묵상 자료 등을 다국어로 무료 제공하며, 학생들은 지도에 자신의 학교를 등록해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2024년에는 약 8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학생연합회 세계 총무 팀 애덤스는 “기도는 세대를 잇고 국경을 넘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며 “이번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말한다. 그는 학생들이 이 날을 통해 각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예레미야 29:12-13)

하나님, 세계 학생의 날을 맞아 전 세계 기독교 대학생들이 한날 한시에 함께 기도로 연합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는 기쁨을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 운동을 통해 열방의 모든 캠퍼스와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주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곳에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사 선교완성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주의연합, 복음주의자들을 ‘보수 성향·동성애 혐오’로 묘사한 TV 보도 규탄



프랑스 복음주의 협의회(CNEF)가 자국 공영방송 France 2의 시사 프로그램 ‘특파원’(Envoyé spécial)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보수 성향, 동성애 혐오적이며 조종적 집단’으로 묘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프랑스 복음주의협의회 지도부는 9월 25일 방영된 ‘복음주의자들: 그리 천사적이지 않은 성공?’ 편이 프랑스 내 120만 복음주의 신자를 낙인찍고 신앙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프랑스에서 10일마다 새로운 복음주의 교회가 생겨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현상을 탐구한다며 대형 교회를 취재했지만, 이 과정에서 ‘탈신자 가족’과 ‘전직 목회자’의 드문 증언을 내세워 교회가 성도들을 통제하고 일부 교회 내에서 전환치료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복음주의를 보수 성향 집단으로 단정하고 편향된 연출을 통해 묘사한 것은 모든 프랑스 기독교인을 낙인찍는 행위이며 유도 질문, 편파적 편집, 전문가에게 자문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은 의심을 낳고 근거 없는 편견을 조장하며, 오히려 차별과 비방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양심·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며 “성경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고 계심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념 안에서 우리는 성경적 확신, 기도할 자유를 지키며, 각 사람이 선택한 충만하고 진정성 있는 신앙 속에서 동행할 자유를 지킨다고 덧붙였다.

또 “합법을 벗어난 전환치료와 같은 실제 문제는 정부 산하 사이버 감시기관인 미빌뤼데스(Miviludes)와 협력해 계속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을 본래의 성으로 돌아가도록 치료하거나 바꾸려는 전환치료를 불법으로 여긴다.

협의회는 이번 방송에 대해 내무부와 방송통신규제기구 ARCOM에 공식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언론인들을 오는 10월 5일 90여 개 도시에서 열리는 연합예배 ‘2025 세러브레이션’ 행사에 초청했다. “언론과 종교계의 정직한 대화는 사회가 다양한 신앙과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출처: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넷셔널, 기도24·365본부 종합).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려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린도전서 1:23-24)

하나님, 복음주의를 편견과 왜곡된 시선으로 묘사하며 조롱하는 프랑스 공영방송을 꾸짖어 주시고 이러한 비방을 부추기는 일에서 돌이켜 공정과 진실을 전하는 통로되게 하소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는 영혼들이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죄를 깨닫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 됨을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이 어리석다 여기며 비난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오픈AI, 12월부터 챗GPT 성인 이용자에 성인 대화 허용

오픈AI가 12월부터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챗GPT에서 성적인 대화와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몇 주 내로 사람들이 GPT-4o에서 좋아했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 버전은 보다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이어 “12월에는 연령 인증 기능을 도입해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화자’는 원칙 아래, 성인에게 성애 콘텐츠(erotica) 등 더 폭넓은 대화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트먼의 엑스 계정에는 이를 반대하며 비판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비판자들은 현실에서 이용자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청소년의 성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어려우며, 성인 이용자라 해도 성도착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트먼은 “우리는 세계의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민단체 전미성착취반대센터의 헤일리 맥나마라 이사는 “성적으로 대상화된 AI 챗봇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가공된 친밀감으로 인해 실제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10월 현재, 세계 성인의 약 10%가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롭게 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잠언 21:24,28)

하나님, 전 세계 성인의 약 10%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에 성적인 대화와 콘텐츠를 허용해 개인과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소식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시다. 무례하고 교만하여 오직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양심마저 저버린 온라인 관계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또한 주께서 부부 안에 허락하신 성을 왜곡하며 가정과 영혼을 파괴하려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멸하여 주소서. 열방의 몸 된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진리와 함께 싸우는 주의 군사 되게 하소서.

▲ 우루과이, 안락사 합법화·중남미 최초

우루과이에서 안락사 승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루과이 상원은 15일 의원 31명 가운데 20명이 안락사 법안 시행에 찬성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것은 우루과이가 처음이다. 법안 통과로 우루과이에서는 앞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기대 수명 진단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달리 기대 수명 요건에 따른 안락사 제한이 없어 불치병 환자는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아도 안락사가 허용된다. 단, 환자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 안락사도 금지된다. 우루과이는 2012년 제한적 낙태 허용과 이듬해에 동성 결혼도 허용했으며 2017년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도 합법화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잠언 14:12,27)

하나님, 낙태, 동성 결혼, 대마초 허용에 이어 이제는 중남미 최초로 제한 없는 안락사까지 합법화해 더욱더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우루과이를 다스려 주십시오.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망각한 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생과 사를 정하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꾸짖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원형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루과이 교회를 통해 더욱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